

르네상스 시대 키워드

교회정치의 폭력성으로 이용되었던 <조화>와 <일치>의 논리로써 원근법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활약했던 작가 중 한 사람인 우첼로는 한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본 원근법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운 미술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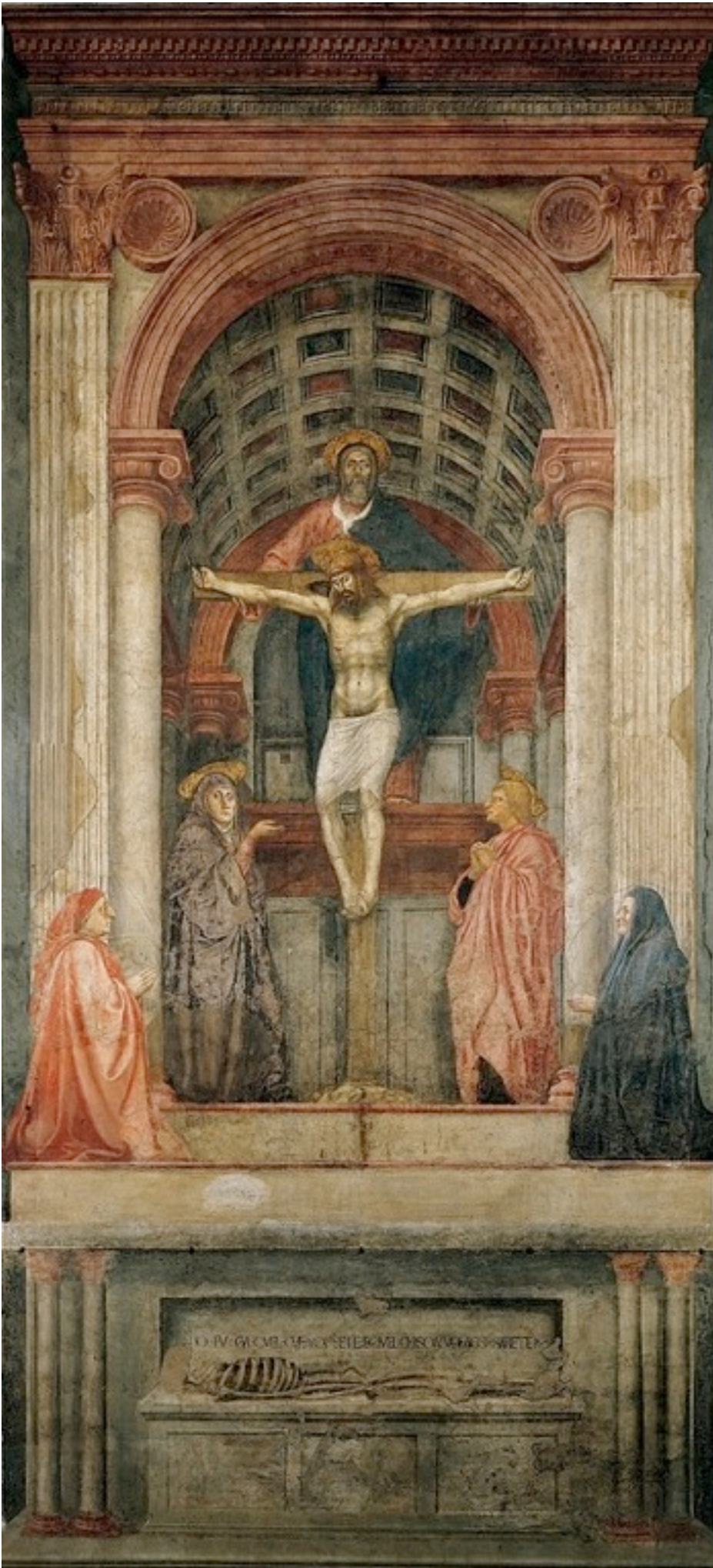
그는 잠에 골아 떨어진 부인을 흔들어 깨운 후,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원근법이란 것이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

1454년 경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미술사가인 바사리는 우첼로에 대해 원근법에 거의 미친 작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Paolo Uccello, 1397~1475의 원근법으로 표현한 전투장면을 보세요.>



건축가이며 조각가인 블루넬레스키에 의해 창안된 원근법은 마사치오에 의해 구현되고 이 때부터 100여 년간 유럽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화가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원근법은 <당시까지 존재하는 실재적 그림이란 의미>에서 벗어나 <보는 그림>으로 전환시키며 사람들에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환기시켜 줍니다.

<블루넬레스키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성당에 원근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사치오의 그림.>

지금은 누구나 그림을 자신의 눈으로 또 그림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지금부터 1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림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무엇인가 존재를 드러낸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눈은 그 증거물의 존재를 믿는 신체적 감각기관일 뿐입니다.



블루넬레스키는 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하고 그것이 주는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원근법은 <신플라톤주의>와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구현하는 도구로 화가들에게 기계처럼 사용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들의 포교와 교회일치를 위해 총체적 조화, 절대적 조화란 개념으로 원근법의 초점이 일치하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일치하는 종교적 표상을 세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화란 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스스로의

삶에 걸머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화>란 참 슬픈 언어입니다. 항상 누군가 큰 대상이 있어 그것에 스스로 함몰하거나 아니면 자신 내부의 갈등의 주 원인을 제거하려고 세운 큰 기둥에 스스로 묶으려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개인적 조화든 집단적 조화든 이 <조화>란 말은 내면에 강압성과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개별성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항상 무참하게 짓밟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의 조화의 폭력성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다 1527년 로마의 함락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흔들림, 부조화의 매너리즘이고 다시 이것이 성숙되어 나타난 것이 <생동감>의 미인 것입니다. 감동이란 언제나 조화를 깨고 나오는 것이죠. 르네상스 미의 허구와 조화의 진실성, 이것이 31번 째의 열린 강좌 주제입니다.

원근법으로 존재하는 미술이 보는 미술로 바뀐 6번 째 미술혁명의 본질에 대한 강의입니다.의 주 원인을 제거하려고 세운 큰 기둥에 스스로 묶으려 사용하는 말이죠.

원근법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탈리아보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네덜란드 지역에서 16세기 후반부터 루시델과 Hobbema 등 많은 작가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The Avenue at Middelharnis (nl) by Meindert Hobbema. Oil on canvas, 104 x 141 cm. 1689. National Gallery, London.



미술의 혁명, 세계를 바꾼 22개 극적 전환기

변환 단계	변환내용
1단계	실용적인 보편적 미의 성립(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미를 찾아내 그것을 상품으로 만든 크레타인들의 미의식) -고대 크레타와 사이프러스인의 미의식
2단계	인류 첫번째 종교와 미술의 혁명(아마르나 미술)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의 미술
3단계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의 성립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 미술의 변화와 발전
4	중국의 청화백자가 바꾼 세계성과 보편성의 성립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5	물질이 눈을 바꾼 미디어으로 이를 처음의 미술 혁명 -유리판과 사진
6	원근법으로 존재하는 미술이 보는 미술로 바뀌었다 - 불루넬레스키와 마사치오
7	만남의 예술, (인문학, 과학과 미술의 만남)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코와 다빈치
8	정치와 미술의 만남(조화성의 미술) 메디치의 정치적 야망과 르네상스의 모순
9	신성의 몰락과 종교개혁미술 등장 -르네상스 몰락, 매너리즘이 등장할 수밖에
10	생동의 미와 감동미의 시대 -카라바조의 전성시대와 새로운 미학의 등장
11	근대미술의 혁명,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고야가 이룬 근대미술의 혁명이란?
12	시민을 위한 미술, 인간을 위한 미술의 태동 -밀레와 바르비종 파의 도전
13	존재하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상파의 도전과 고난
14	사물 속으로 들어가기는 내 안으로 들어가기 --인류를 바꾼 세잔느의 사과
15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것은 구두와 의자가 아니다
16	욕망의 미학의 전개 -- 아름다움은 욕망으로부터(에곤실레와 비엔나의 반역)
17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않는 세계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않는 그것들이 영원한것
18	의미를 파괴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가 붙인다- 오브제 미술과 구조주의 시대출현
19	미술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다 -대중문화와 대중미술의 시대
20	무의미의 의미화로 미술의 영역을 넓힌다 -개념미술의 등장
21	황금가지를 버린 유목민의 미술 -구조를 벗어버리고 탈구조의 시대로
22	신자연주의 미술의 등장 -탈구조주의 시대의 대안, 인간본연으로 돌아가자